

16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배울 말씀	마가복음 4:35-41
읽을 말씀	마가복음 4:39, 41
외울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막 4:39).
메인 아이디어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포인트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려!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 2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한다.
준비물	성경, 생각마당 시각자료 16과, 말씀마당 그림책(별지 16과), 어린이용 교재 16과, 어린이용 스티커지 16과, 나무젓가락, 투명 테이프, 풀, 색연필

설명

어느 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피곤하여 배에서 주무시는 동안,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다. 큰 바람이 일어 거센 파도가 몰려오고 배에 물이 가득 차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웠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막 4:39) 하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막 4:41) 하고 이를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신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자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다.

자연은 때로 우리를 위협하고, 해를 입히기도 한다. 죄로 인해 자연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16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자.

핵심 단어

창조주 예수님 | 예수님은 창조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만드셨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다스리며 운행하고 계신다. 따라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생각마당

READY!

- ① 성경을 준비한다.
- ② 생각마당 시각자료 16과를 뜯어둔다.

GO!



(퍼즐 조각을 바닥에 놓으며) 여기 퍼즐 조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퍼즐 조각을 맞추어 그림을 완성해보세요. (어린이들이 퍼즐을 함께 맞춘다.)

(그림을 완성한 후) 어떤 그림이 되었나요?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네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는지 살펴보아요. (해, 달, 나무, 기린, 코끼리 등 각 그림을 짚어가며 이야기를 나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마가복음 4장 39, 41절을 어린이들과 함께 읽은 후, 말씀마당을 진행한다.)

읽을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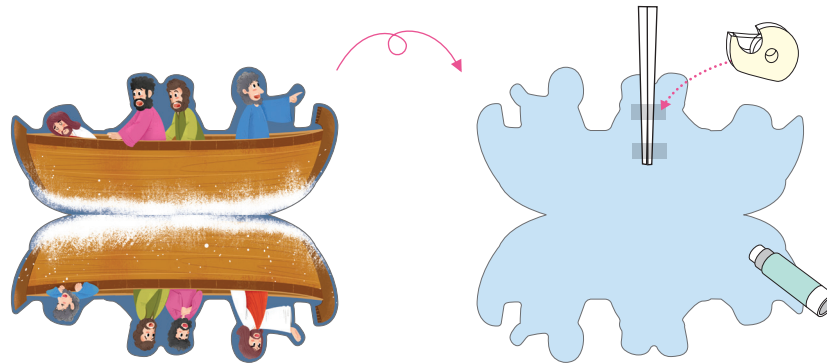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막 4:39).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막 4:41).

말씀마당

READY!

- ① 말씀마당 그림책을 준비한다.
- ② 말씀마당 그림책 별지 5에서 16과 '주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꾸짚으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안내된 방법에 따라 준비한다.



★ 배움마당에서도 계속 사용함.

GO!



(16-1을 보여주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했어요. 바다는 잔잔하고 고요했어요.



(16-2를 보여주고, '주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좌우로 조금씩 흔들며) 그런데 갑자기 아주 강한 바람이 횡횡 불어왔어요. 큰 파도도 철썩철썩 치기 시작했

지요. ('주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좌우로 크게 흔들며) 배는 점점 더 심하게 흔들렸어요. 어느새 배 안에는 바닷물이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대답을 듣고, '주무시는 예수님

과 제자들'의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모두 죽을 수도 있겠어!”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서둘러 깨웠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 어서 일어나보세요! 거친 파도 때문에 모두 죽을 것 같아요.”



(‘주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뒷면으로 돌려, ‘꾸짖으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여주며)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힘 있는 목소리로) “바람아, 파도야! 모두 잠잠하여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16-3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바다는 아주 고요해졌지요.

예수님은 무서워하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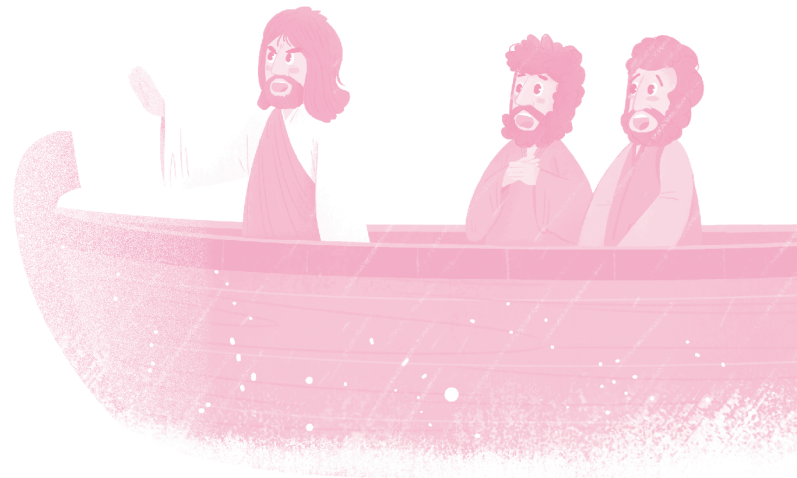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이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를 무

서워했던 거예요.

“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제자들은 서로에게 물으며 놀라워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해진 거예요.



배움마당

READY!

- ① 말씀마당 그림책을 준비한다.
- ② 말씀마당에서 사용한 '주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꾸짚으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준비한다.

GO!

㉸ (16-2와 '주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여주며)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를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무서웠어요.)

㉸ (16-2와 '주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여주며)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1. (16-2와 '꾸짚으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여주며) 예수님은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할까요?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셔서, 자신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믿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해요.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세요!”

tip
 어린이 수만큼 어린이용
 교재와 스티커지를 미리
 뜯어 안내된 방법에 따
 라 준비해두면 편리하다.

READY!

- ① 어린이용 교재 16과를 뜯어, 카드를 안내된 방법에 따라 만들어둔다.
- ② 어린이용 스티커지 16과를 뜯어둔다.
- ③ 풀, 색연필을 준비한다.



GO!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카드와 어린이용 스티커지를 나누어준다.)

1. 그림을 살펴보며, 예수님은 지금도 자연을 다스리심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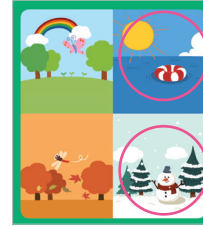
① ('낮과 밤'을 가리키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 그림일까요? (대답을 듣고) 낮과 밤이예요.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고 달과 별이 뜨면 밤이 되어요. 이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계속되지요.

이렇게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도록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대답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낮과 밤을 다스리셔서, 우리는 낮에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밤에 잠자며 쉴 수 있는 거예요.
(‘해, 달, 별’을 각각 가리키며) 우리를 위해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해와 달과 별을 색칠
해보세요. (시간을 준다.)

② (‘사계절’을 가리키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 그림일까요? (대답을 듣고, 각 그림을
가리키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
을이 와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지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도록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대답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계절이 바뀌도록 다스리셔서, 봄에는 파릇한 새싹이 돋는 것을 볼 수 있
고 여름에는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어요. 또 가을에는 알록달록한 나뭇잎을 볼
수 있고,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눈사람도 만들 수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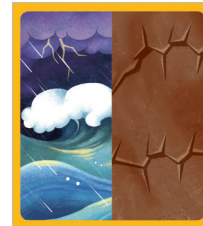
우리를 위해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시
간을 준다.)

2. 자연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한다.

(‘태풍과 지진’을 각각 가리키며) 여러분은 천둥과 번개가 치고 커다란 배를 삼킬 정
도로 높은 파도가 이는 모습,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며 갈라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
나요? (대답을 듣는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무서웠어요. / 두려웠어요.)

자연 때문에 무서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서워하지 말
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을 의지해야 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스티커를
‘태풍과 지진’ 가운데에 붙이며) 저를 따라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적힌 스티커를
이곳에 붙여보세요. (시간을 준다.) **D**



D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우리가 살다보면 자연으로 인한
어려움뿐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
도 만나게 되어요.

-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빠와 엄마가 싸워요. / 동생
이 아파요. /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나요.)
-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
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예수님은 자연뿐 아니라 이 세상
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
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실 거예요.

3. 카드를 접었다 펼치며,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심을 고백한다.

(카드를 펼쳐 들고) 모두 저를 따라 두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각각 잡아보세요. (시간을 준다.)

제가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카드를 펼쳐 들고) 예수님이 (카드를 접으며) 자연을 (카드를 펼치며) 다스리세요!”라고 카드를 접었다가 펼치며 말해보세요.

교 사 낮이 되었어요.

어린이 (카드를 펼쳐 들고) 예수님이 (카드를 접으며) 자연을 (카드를 펼치며) 다스리세요!

교 사 밤이 되었어요.

어린이 (카드를 펼쳐 들고) 예수님이 (카드를 접으며) 자연을 (카드를 펼치며) 다스리세요!

교 사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요.

어린이 (카드를 펼쳐 들고) 예수님이 (카드를 접으며) 자연을 (카드를 펼치며) 다스리세요!

모두 잘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카드를 접으며) 예수님, (카드를 펼치며) 도와주세요!”라고 카드를 접었다가 펼치며 말해보세요.

교 사 천둥과 번개, 높은 파도가 무서워요.

어린이 (카드를 접으며) 예수님, (카드를 펼치며) 도와주세요!

교 사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무서워요.

어린이 (카드를 접으며) 예수님, (카드를 펼치며) 도와주세요!

4. 배운 내용을 정리한 후, 기도로 마친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나요? (대답을 듣고) 우리 모두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약속해요.

기도

하나님,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라!

